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이카루스의 추락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있는 ‘모나스트라키 광장’에는 ‘추락하는 이카루스’ 라는 거대한 동상이 조성되어 있다. 국립 아테네대학에 ‘동상학 전공’이 따로 있을 만큼 동상이 많은 그리스지만, 이것은 그리스 전체의 동상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이자 인상적인 동상이다.

우선 규모부터가 그렇다. 우리로 치면 서을 명동 네거리 정도의 중심지에 주변 건물 높이만한 동상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부조화를 넘어 기이함을 느낄 정도다. 물론 이 동상에 압도당하는 이유가 단지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 불상처럼 번쩍이는 금박을 입힌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찍이 장식미를 배제한 검은색 몸체를 영화 아카데미에서 심야에 모자르트를 찾아가는 ‘살리에리’의 실루엣처럼 자못 비장하고 음습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점만으로 이 동상의 의의성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백미는 단연 내려쬐히는 하강감이다. 날개가 녹아버린 이카루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순간,

아니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을 정지영상으로 포착한 듯한 형상은, “아” 하는 외마디 탄성이 나올 만큼 아찔하고 강렬하다.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던 이카루스의 행복한 비상이 순식간에 땅으로 내리쬐히는 추락으로의 반전과, 그에 따른 경악과 잔혹, 공포가 솟털이 일어설 만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이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유럽 전역을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동상으로 꼽는 이유는 비단 이런 조형적 이유만이 아니다. 대저 한 나라의 중심가에 조성되는 동상은 그 나라의 위인이나 대표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가끔 실존 인물에 아닌 전설이나, 설화 혹은 문학작품의 주인공을 대상으로 삼더라도, 네덜란드의 인어공주, 춘천의 소양강 처녀처럼 연민과 추억을 가진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화의 나라 그리스에서 신화의 주인공을 하나쯤 동상으로 건립한다면 그 대상은 아름다운 헬레나나, 잘생긴

패리스 왕자, 혹은 신종의 신 제우스 정도가 마땅할 터, 이카루스처럼 비극적 인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섬뜩하고 불편한 선택일 것이다.

한데 그리스인들은 놀랍게도 ‘이카루스’, 그것도 비상이 아닌,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동상으로 만들어 수도 아테네의 중심가에도 세웠다. 이유는 짐작하는 대로다.

그들은 델피의 아폴론 신전 상안림(上 引術)에 새겨진 유명한 두 문구, “너 자신을 알라”와 “과도하지 않게”라는 조상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이카루스를 선택했다. 지극히 그리스인다운 선택이다.

그들의 조상은 ‘과도하지 않게’, 즉 과유불급을 자손 대대로 내리는 교훈으로 삼아왔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주제로 산파술이라는 문답술을 창안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는 철학의 주제로 승화시켰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런 이성적 가치를 우선한다. 작자 미상인 ‘전갈의 우화’에서 개구리의 등에 타고 강을 건너던 전갈이 독점으로 개구리를 찌르고 싶은

본능을 참지 못해, 결국 독침을 세워 개구리를 찌른 후 자신도 물에 빠져 죽어가며 남긴 말, “그것이 나의 본성이야” 라는 외마디처럼, 인간은 이성보다 본성의 유혹에 자주 압도당하고 만다.

그리스인들도 그랬다. 남치지 않는 겸손을 국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이카루스’를 동상으로 만들어 세우기까지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들이 동상을 세운 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고, 연이여 투기버벌이 그리스 전역을 휩쓸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조상의 교훈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고, 이카루스의 추락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비단 그리스만의 문제일까. 십수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를 꼭 같이 겪고 있는 그리스인들을 두고 ‘개으른 자들’이라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모나스트라키의 이카루스는 ‘매넨 아간! (과도하지 않게)’이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지 않을까?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종교칼럼

마음을 따뜻하게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서 문성 원불교 산수교당 주임교무

봄인가 싶더니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고, 어느덧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이맘때면 웬지 가슴이 따스해지는 일화가 하나 떠오르곤 한다. 빛바랜 노트 속 오래된 이야기만큼이나 긴 세월동안 잊히지 않는다.

전북 익산에는 원불교 교립학교인 원광대학교가 있다. 그곳에는 원불교 예비성직자를 양성하는 원불교학과가 있다. 그곳에서 학업을 모두 마친 여자 부교무가 첫 발령을 받은 곳은 버스에서 내려 시외리를 걸어 가야하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당이었다. 그녀는 부임한 뒤 매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순교를 다니며 아이들을 모으고, 노인들의 손발이 되어 드렸다. 그녀의 자전거 순교는 온 동네를 종횡무진 달렸고, 마을 법회를 열기도 했다. 그 향기는 익산 원불교 총부에 계신 스승에게도 전해졌다. 스승은 마냥 어리개만 생각했던 초년병 제자가 기특하고 대견했다.

어느 여름 날, 스승은 행장을 꾸렸다. 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어린 제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길을 떠났다. 스승은 맛있는 과자와 수박을 사들고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때마침 내린 비로 교당까지 걸어 가야 하는 시오리의 길이 질척한 황톳길로 변해 있었다. 그 지역은 ‘마누라 없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스승은 구두와 양말을 벗었다. 그리고는 물건을 썼던 끈을 풀어 치마 하리를 동여댔다. 수박은 먹이려 하고, 나머지 짐은 하나로 묶어 길을 재촉했다. 비 온 뒤의 무더위라 등이며 이마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래도 제자를 그리워하는 스승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뒤로하고 단숨에 달려 마침내 원불교 교당에 닿았다.

마당에 들어오는 스승의 모습을 본 제자는 신발을 신는 등 마는 등 스승을 맞이했다. 제자의 눈이 붉어졌다. 스승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그림그려진 스승과 제자는 그저 말없이 함참 동안 서로를 껴안았다. 등 뒤로 보이는 스승의 적삼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는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가슴으로 느끼는 미소로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

그 스승에 그 제자가 참으로 그림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그런 스승과 제자 이야기는 책 속이나 전설 속의 이야기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 찾아보면 가까이 이주 가까이 있을 것이다. 반기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허물없고 가까워야 법을 건넌다고 했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께서 총부에 계실 때 이야기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희미한 남포불 아래에서 살법하실 때에 김정각이라는 제자가 앞에서 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소태산 대종사께서 “앞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기다 못스 같다”고 하였다. 그러자 정각이 곧 일어나 4배를 울리고 웃었다.

그러자 소태산 대종사께서 “내가 그동안 정각에게 정이 떨어질 만한 아단을 많이 쳤으나 조금도 그 신심에 변함이 없었나.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닐 사람이다”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 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는 아니니라.”

‘못할 말과 못해 줄 말이 없는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펜을 놓는다.

기 고

호남의 문제, 탕평의 의미



유 용 상 미래아동병원장·광주전남행복발전소 고문

민주당은 없어지고 새정치연합이 야당을 대표하고 있다. 6·4 지방 선거에서 광주는 확고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강운태 전 시장과 이응섭 후보의 연합이 큰 지지 기반이 없었던 새정치연합 전략공천자 윤장현 후보를 무서운 기세로 지지하여 판을 바꾸어 버렸다. 광주의 민심과 민도는 이렇게 정치의 판세를 180도로 바꿀 정도로 냉철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호남의 기독교권세력인 민주당의 무능 그리고 발전적 미래 비전의 부재에 고민하여 왔던 광주의 선택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광주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간 호남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 노예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비전 제시보다는 반대만 일삼는 무능한 행태, 지역의 개방화 진정한 투명화를 위한 열린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정치 세력이 진영적 반대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주 호남 식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멍울을 키워 왔는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호남, 광주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시비의 정신이 펴릴 살아 있는 호남사람들이 정치적 득실에 매몰된 정치인의 노예로만 살 수 없다는 해방 선언은 아니었는지, 민주당에서 새정치연합으로 이름만 바꾸어 그 자리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호남, 광주 정치 기독교인은 가슴 깊이 되돌아보길 진다!

우리 광주사람들은 왜 반대만 하는 것으로 보일까. 그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호

남지역의 정치적 견해의 편향성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다. 대북정책, 4대강 정책 같은 국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반대 의견도 있지만 연평대전 같은 사안에 대한 꽤 다른 시각들, 그리고 천안함 같은 사건에 일어나는 과잉적 견해도 문제 일 것이다. 정책은 반대 의견이 있어야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 반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이성적 분석 결과를 따져보기도 전에 정치 편향에 따른 과잉이 주류가 되는 분위기는 지식인으로서 아쉽고 답답하기가 한량없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에 대해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충족욕구와 성취욕구로 분류했다. 인간의 욕구가 생존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나 최종적으로 성취와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편차를 욕구 단계설로 설명해보면 호남 사람들은 아직 충족 욕구의 단계에 있으며, 영남은 성취 욕구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두 지역의 심

리 상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이 국가의 이분법적 대립의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편향한 정치적 진영 논리는 우리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불균형과 치우침을 개선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차이는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차츰 시간을 두고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은가.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조차 특정 지역 사투리가 폄하되는 현실, 주류로서 권력의 불균형을 만끽하고, 소외된 지역은 끊임없이 냉소를 받는 사회는 과연 건강할까? 민심이 흔들리는 이때, 인간이 가진 욕구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아우성을 대변해 본다. 대통령에게는 ‘탕평’의 의미를 되새겨 볼 것을 조언드리고 싶다.

건강과 행복이 따라오는 ‘웃는 습관’을 가지자

웃으면 복이 온다? 실제 웃음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하나같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람은 평생 50만 번 이상 웃는데 성인은 하루 평균 10번, 어린이는 평균 400번쯤 웃는다고 한다. 웃으면 심장박동수가 2배로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폐의 구성구석에 산소와 혈액이 공급된다. 웃음은 우리 몸속에서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를 움직이는 최고의 운동이며, 한 번 웃을 때의 운동효과는 에어로빅 5분의 운동량과 같다. 웃음은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인 셈이다.

역지웃음도 마찬가지이다. 눈을 살짝 감고 입을 옆으로 벌려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보자. 슬슬 즐거워지면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지만 웃다보면 분명 웃을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 다른 사람과 같이 웃으면 훨씬 더 많이 웃을 수 있다. 웃음은 돈 들이지 않고 웃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워진다. 여럿이

같이 웃으면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열린 마음과 긍정적 사고를 가져온다. 1884년 미국과 네덜란드의 심리학자가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했다. 세상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부터 딱 하루 10번만 웃자. 건강과 행복은 지금 가까이다. ▲정찬우·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社說

구태 답습 광주시의회, 시민안중에 없는가

광주시의회가 개원 초반부터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제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가 사실상 드러나면서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의장 선거에서 양분돼 향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거 등록 결과, 행정자치 및 산업건설·환경복지·교육위 등 4개 분과 위원장 선거에 각각 단독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이들 모두는 8일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조영표 의장에게 표를 던진 조의장 그룹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복지위원장은 한 여성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의장 선거 막판 조 의장 그룹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 의장 그룹에서 ‘정치 보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을 지지한 의원 12명이 세(勢)를 형성하면서 상임위원장 독식이 기정 사실화되

고 있는 것이다. 의장 선거에서 패한 문상필 의원 측 9명이 문쳐보아 12명을 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양측의 갈등이 사사건건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의회가 자중지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어렵게 된다.

시의원 중 초선 15명이 한눈에 돌아다니다는 것도 시선이 곱지 않다. 답합과 자리 나눠먹기 등 퇴행적 행보를 비판하고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신진의원으로서 정치적 소신과 자질이 의심된다는 얘기도.

물질 문명 광주 발전을 위해 초반부터 구태로 가고 있으니 이들을 뽑은 시민들의 손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의원들이 파벌에 연연하고, 의정이 흔들린다면 시민사회가 시의회를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년 후 표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야 할 것이다.

‘파업기간 월급 달라’ 시내버스 노조의 억지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으로 발생한 운전원들의 임금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말 8일간 버스를 멈춰 세워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재정 손실까지 입었던 노조원들이 이번엔 형세로 파업기간 월급까지 매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자동차노조 광주지역버스노조는 지난 7일부터 광주시청 앞길에서 파업기간의 유급휴일 적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파업으로 월 평균 만(22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부족한 4일치 급여를 연차수당으로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회사 측은 버스노조 소속 운전원들이 파업으로 평균 18일가량 근무한 만큼 일한 대로 임금을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파업기간 버스 운영을 거부한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광주시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시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에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파업으로 운송 수입 손실과 대체운행 단련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시내버스 추가 투입비용 등 10억여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엔 8억여 원이 더 들어간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주 시내버스는 적자분을 광주시가 전액 보전해 주는 구조여서 임금협상의 결과가 단순히 노사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무려 2148억 원의 시민 형세를 쏟아부었다. 올 임금협상에서도 노사가 3.65%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매년 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추가로 책임져야 할 처지다.

게다가 파업기간의 유급휴일 적용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직 현장에 복귀한 운전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크다. 버스노조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無 等 鼓

객석 조명이 꺼졌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소리 한대목이 흘러 나왔다. 판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한번 쯤 들어봤을지한 대목이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 옥방에~’ 판소리 ‘춘향가’ 중 가장 유명한 부분. 옥에 갇힌 춘향이 이몽룡을 그리며 부르는 ‘쑥대머리’다.

지금은 쓰지 않는 옛말이 많아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사내의 목소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느낌

임방울

을 갖게 했다. 목소리 주인공은 국

창 임방울. 그의 소리를 들어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지난 3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공연을 통해서다. 국립문화전당 아시아에 솔극장이 제작한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를 모티브로 했고, 그 시적이 바로 임방울의 ‘쑥대머리’였다. 미술작가 정은영이 쓰고 연출한 작품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과격적이고 흥미로웠다.

국창 임방울(1904~1961)은 광주 광산에서 태어났다. ‘쑥대머리’는 ‘임방울 소리의 처음이자 끝’이라 불리는 그의 대표곡이다. ‘쑥대머리’앨범은 발매

당시 만주와 일본을 포함, 모두 120만 장이 팔려나갔다는 설이 있다.

‘쑥대머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직접 노랫말을 만든 ‘추억’이다. 스물다섯에 세상을 떠난 김산호와의 애절한 사랑이 담긴 곡이다. 또 ‘함평전지 늪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라하고’로 시작되는 ‘호남가’ 역시 그의 소리를 좋아하는 이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곡이다.

위대한 예술가를 기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1956년 공연 실황을 담은 절판본 ‘수궁가’를 300장 한정 발매했다. 광주시립국악

단은 임방울의 삶을 장극 ‘쑥대머리’로 풀어냈고 김미숙부리무용단은 ‘가객, 국창 임방울’을 제작했다. 정은영의 작품에서 유연하게 임방울의 소리를 접했듯, 또 다른 방식으로 임방울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취재 중 만난, 재기 넘치는 젊은 소리꾼들 ‘소리치다’가 선배 임방울을 새롭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다.

10월이던 제22회 임방울국악제가 열린다. 탄생 110주년이 되는 올해는 예년과 다른 의미있는 행사들이 펼쳐질 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